



역사

야스쿠니 신사는 1869년 6월 29일에 세워진 ‘쇼콘샤(招魂社)’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일본은 근대국가로서 크게 거듭나고자 하는 역사적 대변혁(메이지유신)의 과정에 있었고, 한편으로 그러한 대변혁은 피할 수 없는 불행한 내전(보신 전쟁)을 낳아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진력한 많은 사람들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메이지 천황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업적을 후세에 전하고자 여기 도쿄 구단에 쇼콘샤를 창건했습니다. 쇼콘샤는 그 후 1879년 6월 4일에 ‘야스쿠니 신사’로 개칭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건의 이념

1874년 1월 27일 메이지 천황이 처음으로 쇼콘샤를 참배했을 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이름이 무사시노의 이 신사에 영원히 남으리라.”

라는 시를 읊었습니다. 그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야스쿠니 신사는 세상의 평안을 바라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창건되었습니다.

메이지 천황이 명명한 ‘야스쿠니(靖國)’라는 이름에도 ‘조국을 평안하게 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신사에 모셔진 영령들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1853년 이후, 메이지 유신, 보신(戊辰) 전쟁, 세이난(西南) 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제2차 세계대전) 등의 대외 사변과 전쟁에서 오로지 나라를 지키려는 일본만으로 귀중한 목숨을 희생한 246만 6천여 위의 영혼을 신분, 공훈,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조국을 위해 순직한 고귀한 영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메이지 유신의 선구자가 되어 희생된 사람들을 비롯하여 전장에서 구호를 위해 활약한 중군간호사나 여학생, 근로동원 중에 군수공장에서 희생된 학생, 군무원, 문관, 민간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일본인으로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대만 및 한반도 출신자, 시베리아 억류 중에 사망한 군인 및 군무원, 태평양전쟁 종결 시 군사재판에 의해 처형된 이들의 영혼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종다양한 사람들의 영혼을 조국을 위해 순직한 고귀한 영령으로 모두 평등하게 기리는 것은 야스쿠니 신사 창건의 목적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의 유서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고귀한 영령들의 마음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그들이 작성한 유서나 편지를 매달 신사 앞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사 앞에 게시한 유서나 편지는 『영령의 메시지』라는 책으로 엮어 수시로 간행, 배포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와 신도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죽은 이의 영혼이 이승에 그대로 남아 영원히 머물며 자손을 지켜준다고 믿어 왔고, 그러한 믿음은 아직도 죽은 이의 영혼을 신격화하여 제사 지내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문화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가정에서 조상의 영혼을 ‘가신(家神)’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일본인에게 이러한 전통적 사고가 신도 신앙과 함께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은 이의 영혼은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국가공동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국가 차원에서도 똑같이 수호신(신령)으로서 소중히 여겨 왔습니다. 그런 뜻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이러한 일본의 고유한 정신문화의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조국 수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의 신성한 영혼을 일본의 전통 신앙인 신도를 통해 위령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모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야스쿠니 신사가 숭상하는 대상은 그분들의 신성한 영혼이며, 그저 전사자 개개인의 유체나 유골 등을 묻어 놓은 단순한 ‘무덤’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성격

외국인들은 자국에 있는 같은 시설과 비교해 봄으로써 야스쿠니 신사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야스쿠니 신사가 다른 어떤 나라의 전몰자 추모 시설과도 다른 점은, 조국 수호라는 공무 집행 중에 자신을 희생한 분들의 고귀한 영령이 모셔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오해를 낳은 요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죽은 이의 영혼을 ‘신’으로 섬겨 숭배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죽은 이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하는 일본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야스쿠니 신사는 결코 별난 시설이 아닙니다.

아마도 자국의 문화적 전통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분명 어느 누구라도 그 차이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 일본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수많은 분들을 위령하고 국민이 한마음으로 감사와 경의를 올리기 위해 세운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과 일본인에게 있어 얼마나 소중한 시설인가 하는 것 또한 알 것입니다.

현재 종교나 사상, 신조, 국적과 관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는 사실에서도, 야스쿠니 신사가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된 전사자들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이 잘 드러납니다.

제사(축제) 안내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일 년 내내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봄가을에 거행되는 ‘예대제’입니다.

또한 오봉(추석에 해당하는 전통 명절) 시기인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미타마 마쓰리’는 도쿄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경내에는 3만 개가 넘는 봉납 제등과 글이나 그림이 휘호된 등롱이 걸려 많은 방문객으로 붐빕니다.



신년제



예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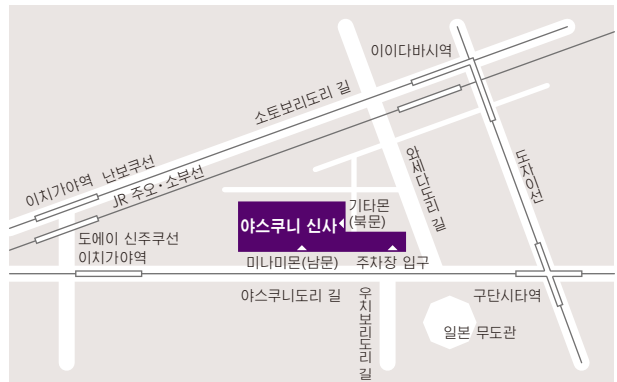
미타마 마쓰리

연례 행사

- 1월 1일 신년제
- 2월 11일 건국기념제
- 2월 17일 기년제(통작 기원 의식)
- 2월 23일 현재 천황의 탄생 축하제
- 4월 21일 ~ 23일 춘계 예대제
- 4월 29일 쇼와 천황의 탄생 축하제
- 6월 29일 창립기념일제
- 6월 30일 대불식(대정황 의식)
- 7월 13일 ~ 16일 미타마 마쓰리
- 10월 17일 ~ 19일 추계 예대제
- 11월 3일 메이지 천황의 탄생 축하제
- 11월 23일 니나메사이(추수감사제)
- 12월 25일 스하라이사이(연말 청소 의식)
- 12월 31일 제야제, 대불식(대정황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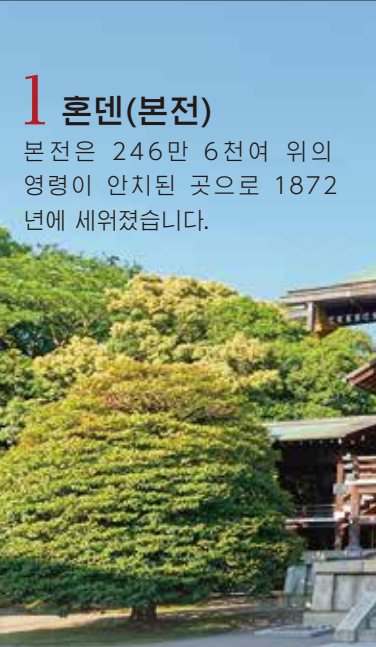
매월 1일, 11일, 21일
월차제 /
매일
아사미케사이, 유미케사이,
에이타이카구라사이

교통편 안내



J R ●주요·소부선 각역 정차 열차.....‘이이다바시역’ ‘이치가야역’에서 각각 도보 10분
지하철 ●도지이선 ·한조몬선 ·도메이 신주쿠선..... ‘구단기타역’에서 도보 5분
●도지이선 ·유리쿠조선 ·도메이 오메도선..... ‘이이다바시역’에서 도보 10분
●난보쿠선 ·유리쿠조선 ·도메이 신주쿠선..... ‘이치가야역’에서 도보 10분
버 스 ●구단기타~다카다노바바 교통 ‘구단기타’ 정류장에서 도보(약 1분)





경내 안내

추천 참배 코스

- 180분 코스
다이이치 도리이(오토리이)[경내도 32]
→ 위령의 뜰(벚꽃 도자기판)[경내도 38]
→ 참배(배전 앞)[경내도 3]
→ 신치테이엔[경내도 15]
→ 유수칸[경내도 28]
→ 외원 휴게소[경내도 39]
- 60분 코스
다이이치 도리이(오토리이)[경내도 32]
→ 위령의 뜰(벚꽃 도자기판)[경내도 38]
→ 참배(배전 앞)[경내도 3]
→ 외원 휴게소[경내도 39]

